

Feature

큐레이터의 이상한 친구들



EDITOR
SEOL MI HYUN
PHOTOGRAPHER
GO YOUNG 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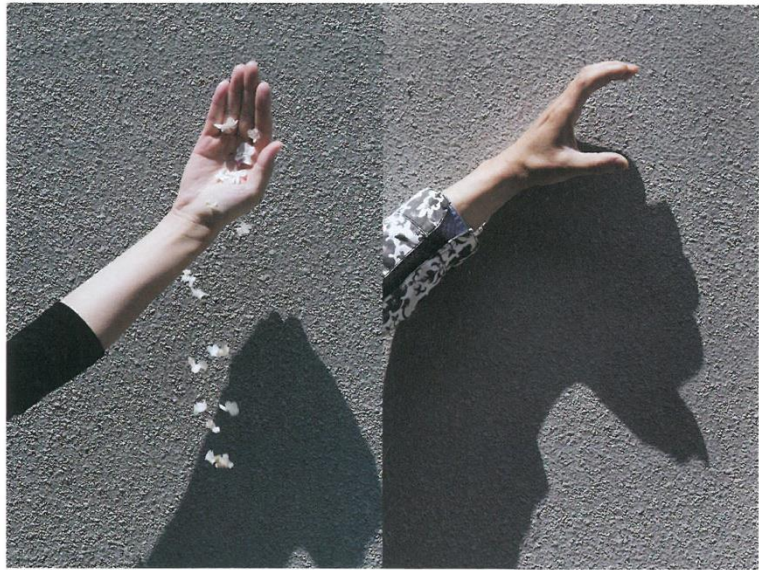
아라리오뮤지엄 류정화 & 이동욱

아틀리에 에르메스 김윤경 & 양아치

미술계를 움직이는 것은 큰 컬렉터가 아니라 망명히 이틀이어야 한다.

화이트 큐브 안팎의 판을 짜는 큐레이터와
그 판 위에서 멋지게 춤추는 작가들.
가장 가까이에서 작가들의 팔팔 뛰는 심장을 목도하는 큐레이터,
그들이 편애하는 작가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국제갤러리 김정연 & 정연두



인간의 삶, 그 이면의 치열함을 아름답게, 때론 잔혹하게 풀어내는 미술이라는 이름의 성지, 그 고매한 성지에서 고군분투 중인 큐레이터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작가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답을 보내왔고, 그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 역시 명백했다. 독특한 상상력과 현실에 대한 따뜻한 시선, 미래에 대한 진지하고 유쾌한 반전, 무엇보다 조금은 이상한 큐레이터의 작가 친구들. 빈가운 '손 인사'를 건네달라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들은 기꺼이 손을 들어 보였다. 큐레이터와 작가라는 이름으로 만난, 그들의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을 보았다.



인연의 시작은 2010년. "제가 국제갤러리에서 어시스턴트로 일을 막 시작한 무렵이었어요."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

벌써 10년 넘게 국제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자리를 지킨 정연두 작가의 입장에서 김정연은 까마득한 후배인 셈. 그런 후배가 어느덧 국제갤러리 소속의 작가 군단을 책임지는 디렉터로 성장했으니. "큐레이터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가를 발로 차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부류, 두 번째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부류, 세 번째는 작가의 역량을 오히려 끌어내리는 경우죠. 김정연 큐레이터요? 어려워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죠(웃음)." 한데 정연두처럼 자신의 입지를 굳힌 작가도 큐레이터의 역량이 전시에 영향을 미칠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인근의 미술관에서 이를 주제로 한 전시 제안이 들어왔어요. 사전 조사도 할 겸 그곳을 찾았는데, 담당 큐레이터가 제 손을 잡고 자꾸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가서 보니 어느 고등학교의 연극 공연장이더군요. '나를 여기 왜 데려왔지?' 싶었죠." 서툴지만 후쿠시마 원전을 소재로 한 아이들의 공연을 보여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다뤄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줄 수 있는 큐레이터를 만나면 작가로서도 그야말로 행운이다. 그렇다고 큐레이터와 작가 사이가 마냥 돕고 격려하는 관계일 수는 없다. "약간의 평행을 유지해야 할 때도 생겨요. 저희는 작가와 기관 사이의 중간자 입장에 놓일 때가 많은데, 되도록 작가의 시선에서 촉각을 세우고 작가가 어느 지점을 짚어내고 싶은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김정연의



& 국제갤러리 디렉터 김정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연두가 두둔하듯 말을 잇는다. “미지근함과 차가움이 있어야 순환이 되듯,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연두는 요즘 5월 말 시작될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한국관 초대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태다. 이번 작업은 미국이면서도 미국이 아닌 다민족 사회의 단면을 설치 영상으로 담아낸 <식스포인트>의 연장선. “2010년 뉴욕 작업 후 서울로 돌아오면서 <식스포인트>의 한국 버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안을 받았는데, 4년 동안 만든 작품을 5개월 만에 만들어달래서 당혹스러웠죠.” 이번 <베니스건축비엔날레>의 주제는 ‘융적을 게임’. 그는 지난 1월부터 신길동, 미아동 등 재개발 현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이야기를 담았다. “10분 정도 밥 먹고 온 사이에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현장을 목도했죠. 어릴 적 어머니가 처음 만들어준 스테이크의 기억이 담긴 집, 자기 방. 더구나 침대를 가진 오빠가 마냥 부러웠던 동생 등 우리가 익숙한 집 너머 안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한국 특유의 압축 성장의 현장인 재개발 지역. 그는 건축적으로 거리를 둔 채, 그곳 사람들의 삶을 묵묵히 담아냈다. “사진의 레이어를 일일이 따서 3D로 구현한 10~12분짜리 영상 작업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겹쳐질 거예요.” 녹슨 철물, 깨진 벽돌 등 누군가에게는 익숙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묘한 경계. 과연 베니스 사

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역시 궁금하다. 그러나 그는 이 궁금증을 베니스 현장에서 직접 풀 수는 없다. ‘탈북자’를 주제로 한 다음 프로젝트 때문. “인천에서 열릴 디아스포라영화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예요. 파리에서 그곳 이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 적 있는데, 정작 한국 새터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낼 생각은 못했죠.” 그는 자신의 아이와 함께 탈북자 모임의 आयु회를 찾아가며 그들의 입을 통해 탈북 과정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탈북 과정을 들으면 얼핏 드라마 같아요. 진짜 자기 얘기인지, 교육 때문인지 헷갈리는 얘기도 많고요.”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처음엔 행복하지만, 3년 내에 남한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 물론 그가 말하려는 건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그저 개인의 삶에 담긴 이야기를 담담히 담아낼 뿐이다. “작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만나지만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은 절대 아니예요.” 그런 탓에 김정연 디렉터와의 소통 수단 역시 이메일일 때가 많고, 답변이러야 늘 단답형일 때가 많다고 그는 웃는다. 그가 믿는 건, 한 가지. 묵묵한 신뢰다. 서울행 KTX를 놓쳐 돌아서 부산 달맞이교개를 함께 걸었던 기억, 1시간 30분 동안 히치하이킹을 해 오포닝 행사에 달려온 따뜻한 배려. 김정연의 묵묵한 마음과 정연두의 듩직한 민음이 있어 이들은 작가 선생님을 넘어 ‘친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